

다산포럼

자연의 메신저 고흐의 그림



유 지 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꿈틀대며 타오르는 붓의 흔적, 그 흐름을 타고 피어오르는 별, 꽃, 나무, 밀밭, 까마귀, 그리고 사람들 이미지가 시선을 끌어들인다. 강렬하게 다가오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은 휴대전화, 방석 , 컵 받침, 가방, 스웨터 등등 온갖 일상용품에 복제되어 전시된다.

미치도록 그림을 그리며 정신병까지 앓다 37세에 세상을 떠난 그의 삶은 영화, 음악, 뮤지컬 등 예술 텍스트들로 재생산되고 일상에 영감을 준다. 조용필이 노래했듯이, 지구 한구석에서 외로운 삶에 지친 한 사람, ‘칼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살고픈 그는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흐란 사나이도 있었는데’라며 위로받는 심정을 토로한다. 로드 다크 ‘바람의 춤꾼’(2017, 최상진)에서도 아픔을 춤으로 풀어내는 이삼현의 방에 놓인 ‘별이 빛나

는 밤에’ 그림 액자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 그림이 춤꾼의 자유로운 예술혼에 숨결을 불어넣어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 강렬한 숨결이 이 가을 영화 ‘러빙 빈센트’(2017, 도로타 코비엘라 등)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6만여 점에 달하는 유화 애니메이션은 고흐 화풍을 영화 세상 풍경으로 바꾸어 낸다. 에피소드 연작 ‘꿈’(1990, 구로사와 아키라) ‘제5면 까마귀’(에서도 화폭이 프레임으로 부활한다. 고흐 그림을 가만히 지켜보면 구로사와는 ‘아를르의 도개교’ 속으로 빠져든다. 몽환적 풍경 속에서 고흐는 자른 귀를 감싼 봉대를 두른 채 노랑계 펼쳐진 밀밭과 파란 하늘로 날아오르는 까마귀 때를 그리고 있다. 꿈 한 조각에 머물던 이미지가 (제목처럼) ‘빈센트를 사랑하는’ 107명 예술가의 작업을 통해 장대한 이미지 세상으로 피어난다.

미치도록 그리다 떠난 화가

고흐는 후원자이자 버림목이었던 동생 테오에게 늘 편지를 쓴다. 고흐가 세상을 떠난 1년 후, 우편배달부는 아들 아르망에게 마지막 편지를 테오에게 전해 주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수신자인 테오도 세상을 떠나, 또 다른 수신자 추적에 나선

아르망은 풍문에 휩싸여 가려진 고흐 삶의 진실을 밝혀내는 여정에 돌입하게 된다. 주치의 가세 박사와 의혹에 쌓인 관계, 그의 딸 마르그리트와의 비밀스러운 관계들이 미로처럼 펼쳐진다. 살아 움직이는 그림들이 배경이자 소품이고 캐릭터가 되는 경이로운 이미지 세상이다.

상처받은 가슴에 위로를

아르망을 따라가노라면, 고흐는 어떤 이예겐 괴팍한 인물이지만, 또 다른 이예겐 친절하고 다정하며, 순박한 예술 노동자이기도 하다. 그는 아침 일찍 들뜬에 나가 온종일 그림을 그리고 돌아와 테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사랑했다. 나뭇배 사공에 따르면, 그는 또 강을 좋아해 홀로 고즈넉하게 강을 바라보며 그림 그리기를 즐겼다. 까마귀가 그의 점심을 먹는 것을 귀엽다고 구경하며 감탄하던 풍경을 들려주기도 한다.

‘반 고흐 : 위대한 유산’(2013, 펴 반 호브)에선, 죽은 후 엄청나게 유명해진 삼촌의 유산을 받은 조카 빌럼 반 고흐(테오의 아들의 곤경에 처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그 격랑을 타고 세계 시민에게 공개돼 인기를 누리는 ‘반 고흐 미술관’ 건립 동기가 영화에서 밝혀지는 흥미로운 구석도 있다.

십여 년 전, 심포지엄 참석차 암스테르담에 갔을 때, 반 고흐 미술관에서 홀로 한나절을 지냈던 기억이 떠오른다. 고뇌에 찬 표정이 진하게 각인된 초상화들, 강렬하게 피어오르던 꽃잎들 하나하나에 전율을 느껴 그때사 왔던 화집을 꺼내 본다. 화집 제목은 ‘반 고흐의 꽃들 : 자연의 위대한 책’이다. 남루한 삶,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 그 사랑과 경탄을 화폭에 담아낸 고흐는 자연을 전해 주는 메신저란 생각이 든다. 친구가 선물해 준 책가방에는 고흐의 노란 해바라기들이 가득 피어나는 그림이 담겨 있다. 그 책가방을 걸치고 낙엽을 밟으며 가을 길을 걸어가며 파란 하늘과 떠가는 구름을 보노라니 그가 전해 주는 자연이 일상의 격려이자 위로란 깨우침이 일어난다.

돈 맥클린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보며 만든 노래처럼, ‘이제 이해해요, 당신이 내게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라는 가사가 마음속에 전해 온다. ‘예술의 위로를 상처받은 가슴에’라며, 세상이 몰라주어도 자연과 예술로 접속하며 스스로를 격려했던 고흐의 마음이 외 닿는 가을 하루하루에 감사한다. “우리가 그 무엇도 시도할 용기가 없다면 인생은 무의의미가 있었는가?”라는 그의 말도 경계를 넘고픈 모든 이들에게 주는 따스한 격려로 다가온다.

社 說

LH 민간공원 개발 공공성부터 먼저 생각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난 2010년 이후 광주 외곽 곳곳에 값싼 토지를 사들여 아파트 부지로 조성, 건설업체에 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에 보장된 수용 권한을 이용해 손쉽게 공동주택 택지를 개발해 공급하면서 도시 외곽의 고층 개발을 이끈 것이다.

광주일보가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LH는 광주첨단 등 103개 공동주택 필지(298만 2772.7㎡)를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공급했다. 여기에서 LH가 얻은 수익은 최소한 13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LH는 대부분 자연 부락이나 논·밭·임야 등의 부지를 매입 또는 수용해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단지로 조성한 뒤 건설업체 등에 넘겼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공기업이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개발법 등에서 보장한 토지수용 권한을 통해 ‘땅 장사’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부실 운영 서울 농산물 센터 대책 마련해야

전남산 농수축산물의 유통 확대를 위해 서울에 개설한 ‘서울 친환경 농수축산물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의 매출이 개장 당시에 비해 5분의1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센터 운영사는 매출이 매년 감소세임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판촉보다는 시설 내 임대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센터는 지난 2012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217억 원을 들여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다.

그러나 전남도의회 권옥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장 첫째 매출은 4억 2000만 원이었으나 2013년 1500만 원, 2014년 1900만 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2015년 1억 6000만 원으로 잠시 증가했으나 2016년 8700만 원으로 다시 주저앉았다. 4년 평균 연 매출은 5728만 원에 그쳤다.

유통센터는 토지매입비 100억 원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한 민자사업으로, 소유권을 지자체가 갖는 대신 사업자(운영사)가 18년간 운영권을 갖는다. 운영사는 애초 100% 전남 농수축산물을 판매하기로 협약했으나 올 1월 전남산 60%·일반 농산물 30%·공예품 10%로 상품 구성을 바꿔 설립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다.

5년 전 217억 원을 들인 유통센터는 현재 시가가 3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부동산 가치가 오르 탓인듯 유통센터 운영사는 임대 수익에 치중하면서 전남산 농수축산물 판매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운영사는 유통센터가 수도권에 전남 지역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동시에 판매망을 넓히기 위한 교두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남도의 철저한 감독과 부실 운영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無 等 鼓

1937년 4월 27일, 파블로 피카소는 파리 노천 카페 ‘드 마고’에서 놀라운 신문 보도를 접하게 된다. 하루 전날 독일 나치 공군 ‘콘도르 군단’이 스페인 북부에 있는 소도시 게르니카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었다는 뉴스였다. 당시 모국인 스페인은 공화국군과 프랑코 장군 휘하 반란군이 내전을 벌이고 있었다. 폭격기를 동원해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민간인 도시를 공격한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극이었다.

피카소는 작업실에 들어박혀 끓어오르는 분노를 화폭에 옮겼다. 5월 1일 작품 스케치를 마치고, 5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해 6월 4일 붓을 내려놓았다. 피카소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게르니카’는 그렇게 탄생했다. 프랑코 총통이 죽고 스페인이 민주화된 후에도 미국에서 스페인으로 43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던 ‘사연 많은’ 그림이기도 하다. 같은 해 6월 말,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 스페인 관에 걸린 ‘게르니카’를 본 나치 장교가 피카소에게 물었다. “이 그림을 당신이 그렸나?” 피카소가 답했다. “아니지, 이 그림은 당신들이 그렸지.”

/송기웅 애항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표 FAX 222-4918 집 부 220-0649 치 부 220-0632 회 부 220-0642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220-0664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교단에서



김 진 구
우산중 교감

수능이 9일 남았다. 고3 학생들의 긴장은 표현할 길이 없다. 학부모의 간절한 기원도 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 중력을 높여주는 약’ 주의보를 내렸다. 시험 당일 출근 시간이 10시로 늦춰지고, 듣기 평가 시간에는 항공기 이착륙도 금지된다. 비행중인 항공기나 전투기는 시험장 소재 지역 상공에서 1만 피트 이상의 고도를 유지해야 한다. 세계에서 드문 국가적인 일이다.

이러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흔들리고 있다. 몇 과목을 절대 평가로 할 것인가를 놓고 도마 위에서 계류 중이다. 수시 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금년에 80% 가까이 되고, 수능 최저 등급이 없거나 약화되면서 수능의 비중이 낮아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점차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편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급수제 전형

기 고



김 대 현
위민연구원 원장

게임 이론 중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이 있다. 검사가 두 범죄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하는 것이다. 먼저 죄수a와 죄수b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다. 자백하거나 침묵하거나이다. 둘 다 침묵하면 3일만에 증거 부족으로 모두 석방되지만 둘 다 자백하면 10년 형이고 한쪽이 자백하고 다른 한쪽이 침묵하면 자백한 사람은 바로 석방이 되지만 침묵한 사람은 30년 형에 처해진다. 이때 두 죄수는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없는 격리된 상황에서 검사의 심문에 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로 침묵을 지켜 둘 다 무죄로 석방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현재 한반도 상황에 견주어 보면 검사는 미국이다. 미국은 남과 북에게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석방이 되는 길이 아닌 끊임없는 갈등 관계를 조장한다.

수정공 효과로 본 한반도의 핵전쟁

죄수의 딜레마는 두 죄수가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래서 두 죄수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지만 남과 북은 충분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럼에도 현재 남북한 대화 장구는 수년째 닫혀있고 미국과 북한은 연일 말 폭탄으로 서로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 이론처럼 서로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평화)이 되는 전략이 아니라 두 사람(남과 북) 모두가 불리하게(전쟁) 되는 상황을 선택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적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 정치에서 본 관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국제 정치학의 조지 나이프 교수의 수정공 효과(Crystal ball effect) 이론처럼 1차 세계대전을 촉발했던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수정공을 통해 미러 전쟁의 참상을 보았다면 자신들의 제국이 무너지고 수백만 명의 국민이 희생되는 전쟁을 시작했겠냐는 것이다.

핵무기 역시 어찌면 2차 대전 이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건 이런 수정공의 효과를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를 통해 보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핵 억지를 불러오게 했다는 것이다.

국제 정치의 많은 분석가들은 핵무기가 오히려 3차 세계 대전을 막고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핵무기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국제 질서의 특이한 세력 균형으로 무력보다는 가공할 위력의 핵무기에 대한 위협이 심리적인 면에서 2차 대전 이후 장기적인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인정과 존속이 목적이라는 게 국제 정치학에서는 정설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은 전쟁이 발생할시 상호 자동 개입 조항에 합의되어 있다. 38선을 넘어 북한이 침략을 당하면 중국은 자동으로 개입한다. 반면 북한이 침략을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미국이나 남한을 선제 공격 할 경우 중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다. 한미 양국은 이런 조항 자체가 없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가 공격용 보다는 방어용이라는데 더 무게가 쏠린다.

미국은 1945년부터 50년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홀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6·25 한국 전쟁에서도 사용하지 않았고 냉전 시기 양국 체제였던 소련을 향해서도 단 한번 위협만 했지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 즉 미국의 핵무기는 방어용이지 공격용이 아니라는 건 미국이나 북한이 같다고 본다. 그럼에도 한반도에 전쟁 위협을 조정하며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일부 보수 세력과 정치권, 그리고 미국 내

무기판매 장사치들의 일치된 계산속에 한반도의 전쟁 시나리오는 그들 외에 아무도 위협을 느끼지 못한 채 국민적 집단 안보 불감증만 심어주고 있다. 아니 사실 그들이야말로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보자. 정말 한반도에 당장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처럼 현실화되려면 최소한 정부에서 핵전쟁에 대비한 국민 대피 요령이나 핵전쟁 시 대처 방안을 교육해야하고 대한민국 주재 외국인들은 보따리를 싸서 떠나야 한다. 우리가 중동 테러 국가에 여행 금지를 발표하듯 외국 또한 대한민국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해야한다.

우리는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 위와 같은 일을 단 한 번도 겪어 본 적이 없다. 다만, 박근혜 이명박 보수 정권 10년 동안 미국의 군사 무기를 36조 원여치나 구매하여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과 미군도 사용할 수 없어 용도 폐기한 45년 된 공격형 헬기를 1500억 원에 구입했지만 1년도 안되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을 뿐이다. 정권이 바뀌고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니 철따라 극성을 부리는 정치권들의 한반도 핵전쟁 논쟁이 그렇게 얹아도 힘들고 고달픈 국민들의 삶에 돌덩이를 하나 더 얹는 것만큼 무겁기만 하다.